

# 문둥병(癩病)의 象徵的 罪觀考察

—C. H. Mackintosh 레위기 강해 13장 14장을 중심으로—

權 赫 奉

## 小論要約

Mackintosh의 레위기 강해 13장 14장을 中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문둥병이 죄를 象徵해 주고 있음을 論證한 것이다. 문둥병의 죄상징을 聖經講解의 으로 하던 在來式 方法을 止揚하고, 組織神學的으로 원리를 제시 하고 牧會의 適用을 戒하면서 新約時代의 罪觀을 視覺的으로 提示해 보았다.

##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V. 문둥병의 潔禮儀式과 贖罪觀 |
| II. 문둥병 概觀     | 1. 陣外 潔禮儀式        |
| III. 聖書의 문둥병   | 2. 陣內 潔禮儀式        |
| IV. 문둥병 診斷과 罪觀 | 3. 家屋 潔禮儀式        |
| 1. 人體의 문둥병     | VI. 結 語           |
| 2. 문둥병자의 處身    | 참고문헌              |
| 3. 衣服의 문둥병     |                   |

## I. 問題의 提起

일반적으로 新約은 內容面이나 思想面에서 舊約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사실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에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신약의 獨自인 것이 아니고 歷史的으로 이미 구약과 관련되어 있어 구약의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完成된 것을 볼 수 있다」.<sup>1)</sup>

그런데도 신약과 구약을 別個로 생각하고 어떤 主題를 論한다는 것은 그 論題를 철저히 糾明할 기회를 喪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에 서는 구약 以外에 신약을 正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신약이 가진 使命을 過大視하는 나머지 구약의 地位를 의식해 버리고 신약만을 기독교의 經典으로 하고 구약을 除去해 버리자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있었다는 것은 으레 肯定하는 일이다」.<sup>2)</sup> 그러나 舊約의 要素가 신약의 實體가 된 것은 신구약이 함께 立證해 준다. 「기독교 진리의 形式的 原理는 靈的으로 해석된 聖書이다. 이것은 特別히 신약을 指稱한다. 그러나 舊約이 除外된 것은 아니다. 구약은 一次的인 啓示이다」.<sup>3)</sup>

이상과 같은 新舊約의 運命的 關係를 基盤으로 하여 모세 5경중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문둥병을 新約的 罪觀과 結付시켜 보코자 한다. 특히 本小論에서는 매킨토쉬(C. H. Mackintosh)의 레위기 講解<sup>4)</sup> 13장과

1) 김정준, *이스라엘신앙과 신학*, (서울: 聖文學舍, 1976), p. 183.

2) *上揭書* pp. 177—178.

3) E. Y. Mullins,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54), pp. 28—29.

4) C. H. Mackintosh 저, 권혁봉역, *레위기 강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6). 매킨토쉬는 흔히 C. H. M.으로 통하는 이름을 지닌 경건한 저술가요 설교자며 신학자로서, 1820년 아일랜드의 카운티윌로우(County Wicklow, Ireland)에서 출생했다. 18세때 자기 누님의 회심의 간증을 실은 편지를 받고 영적으로 자각을 받았다. 특히 J. N. Darby의 성령의 역사(Opertation of the Spirit) 안에 있는 한 문장을 접하고 마음의 확고한 평안을 가졌다. 그것은 「평안을 안겨다 주는 것은 우리 안의 그리스도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활동이다」라는 말이었다. 평안은 주관적 느낌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함을 뜻하고 있다. 1844년 웨스트포트(Westport)에서 정열을 쏟아 교육사업을 했으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보

14장을 概觀하면서 구약의 문둥병에 나타난 象徴의 罪觀을 注目코자 한다. 이런 試圖은 구약의 模型論의 解釋의 復活에 힘입은 바 크다. 「또 舊約神學의 復興은 模型論의 해석에 새로운 關心事를 불러 일으켰다. 近代學者들이 구약에 대한 기독교적 性格과 價値를 保存하게 된 것은 구약의 模型論의 해석을 通해서 된 것이다」.<sup>5)</sup> 또 버나드 램(Bernard Ramm)은 C. H. 매킨토쉬의 모세 5경 강해를 매우 福스럽고 特異할만한 문헌이라고 했다. 그 강해서는 엄격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온 充分한 洞察力과 靈의 眞理로 충만되어 있는데, 特記할만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恩惠와 救援과 그리스도인의 生活에 強調點을 둔다고 했다. 단지 매킨토쉬의 저서는 比喩와 좀 지나친 모험론적 해석이 많이 들어 있다고 약간의 不平을 털어 놓기는 했으나 신약의 神秘的 要素를 視覺的으로 밝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sup>6)</sup>

한가지 附言해 두어야 할 事實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문둥병이 죄를 象徴해 준다는 言明을 組織神學 敎課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sup>7)</sup> 換言하면, 문둥병의 罪象徴의 事實은 組織神學的 提示라기 보다는 註釋學的 내지는 聖經講解의 提示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小論에서는 문둥병을 通해 나타난 象徴의 罪觀을 組織神學的 立場에서 舉論해야 할 必

---

다 더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리자 미련없이 1853년에 포기하고 그후부터 실사이 없이 저술과 설교로 일관했다. 1859—1860년에 이르는 아일랜드 부흥기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어언 40년간을 Things New and Old 잡지를 편집했다. 특히 그의 모세오경 강해는 세기를 거듭하며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국어판으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완료 중이다. 창세기에는 이정운 역으로 1958년에 초판되었고 출애굽기부터는 필자가 번역을 거듭해와서 이제 신명기(하)만 남긴채 완역했다. 신명기(하)도 금년(1978)말에는 완역출판될 것이다. 매킨토쉬는 “The God of Peace”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1896년에 주님의 품 안으로 안식했다.

- 5) Bernard Ramm 저, 권혁봉역, 성경해석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p. 260.
- 6) 上揭書, p. 260.
- 7) A. H. Strong의 Systematic Theology나, E. Y. Mullins의 前揭書나, W. T. Conner의 The Gospel of Redemption 등 浸禮敎會의 著名한 신학자들의 저술에도 문둥병과 죄를 결부시키는 實例를 남기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L. Berkhof의 Systematic Theology나 Charles Hodge의 Systematic Theology 안에서도 역시 그 實例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본小論에서 계속 引用되는 주석이나 강해에는 문둥병과 죄와의 관계를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要性を切感케한다. 특히 매킨로쉬의 레위기 13장, 14장의 강해에서 나타난 죄관을 새로운 角度에서 腐刻시켜 보고자 한다.

## II. 문둥병 概觀

문둥병은 一種의 慢性傳染病으로서, 紀元前부터 地中海 연역에 있었으며 15세기 경부터 유럽에 蔓延되었고, 16세기 이후에는 隔離의 實行으로 점차 數가 減少해 오다가 오늘날에는 一部 地方에서 散發的으로 發生할 뿐이다.

東洋에서는 論語에 記載되어 있어 그 以前부터 發生하였으리라 추측되고, 점차 그 數가 增加하여 오늘날 인도, 필리핀, 중국, 일본, 한국 등은 그 流行地區이다.<sup>8)</sup>

문둥병의 症勢에서 重要한 것은 皮膚症勢와 神經症勢이며 눈의 변화이다. 代表的인 皮膚의 변화는 結節이다. 結節은 大小 여러가지로 半球狀을 하고 있으며, 몸의 여기 저기에 나타난다. 色은 정상 피부색이거나 또는 붉은 색이 돌기도하며 다소의 光澤을 띠고 있다. 結節은 癩細胞를 主成分으로 하는데 이 세포 속에 癩菌이 포함되어 있다. 문둥병의 또 다른 皮膚의 한 변화는 圓形이나 卵形으로 된, 境界가 뚜렷한 斑紋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문은 불그스레하며 皮膚面에서 隆起하지 않는 것과 심하게 癢기하는 것이 있다. 이 반문은 知覺이 마비되어 있어서,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뜨거운 것이 닿아도 감각이 없다. 이 밖에 脫毛, 皮膚의 萎縮, 潰瘍 등도 나타난다.

神經症勢로 말하면, 末梢神經이 侵害되어 지각의 異狀, 운동마비, 신경통, 신경비대 등의 증세가 일어나나, 中樞神經系는 침범되지 않으므로 意識이나 知能 등에는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知覺麻痺는 가장 중요한 증세로 診斷上의 귀중한 端緒가 된다. 溫覺, 冷覺, 痛覺의 순서로 침범되고 觸覺이 얼마 후에 그리고 深部の 知覺이 맨 나중에 마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손발을 다치거나 화상을 당하여도 자신이 느낄 수 없어 곪아도 그대로 放置하여 組織이 심하게 상한다.<sup>9)</sup>

문둥병은 癩菌의 전염으로 발생한다. 나균은 일종의 抗酸性菌이며 1871

8) 김익달편, 가정의학대사전, (서울:학원사, 1961), p.750.

9) 태극출판사편, 현대가정의학백과(4), 1974, pp.335—336.

년에 Hansen이 발견했다. 나균의 잠복기간은 數年으로 시작하여 二十여 년간이다. 문둥병은 全身疾患이며 그 나타나는 증세는 多樣하다. 종래 이 병의 형태로는 신경문둥병, 斑紋문둥병, 結節문둥병, 混合문둥병으로 區分된다.<sup>10)</sup>

문둥병이 많이 流行된 곳은 海邊近處이며 또한 魚族을 常食하는 者에게 많다는 것이다. 豚肉을 먹는 자도 이 병에 잘 걸린다. 食料品 中에 脂肪質이 많고 變味한 것이면 이 병에 걸리기 쉬운 영양을 주는 모양이다. 빈한하고 영양불량한 자에게 이 병은 잘 엄습한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富裕階級 中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門外에 出入이 적은 관계로 他人에게는 알려짐이 적은 까닭인듯 하다<sup>11)</sup>.

이 病이 遺傳인지는 未詳하나 그 病保有者에게서 出生한 자녀는 出産後 1년 미만하여 父母를 떠나 있으면 문둥병자 됨을 면한다.<sup>12)</sup>

이 병은 실지로 접촉함으로써 전염되는 것이지, 음식물이나 곤충이나 공기매개로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수십년 전에 미국에서 이 병을 전염병으로 認定하지 않고 그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았던 관계로 문둥병자의 數가 增加하여 큰 困惑을 當한 일이 있었다.<sup>13)</sup>

문둥병의 治療策으로는 民間療法을 시도했으나 特効는 없다. 수년전까지 大楓子油가 비교적 유효하므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주로 주사 혹은 內服으로 상당한 효과를 본다.<sup>14)</sup>

문둥병의 치료는 주로 化學療法劑가 쓰인다. 그 중에서도 설퍼제는 문둥병의 特効藥이라고 할만큼 효과가 있다. 여기에는 내복용의 설퍼제와 프로민과 같은 주사용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바르게 쓰면 수개월 안에 현저하게 효과가 나타난다. 이 밖에 티오 요소제(尿素劑)도 쓰인다.<sup>15)</sup> 문둥병은 難治病이 아니라 早期發見하면 고칠 수 있는 病이다.

10) 김익달편, 前掲書, p. 750.

11) 박안련, 표준성경주석레위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7), p. 231.

12) 上掲書, p. 230.

13) 同上.

14) 김익달편, 前掲書, p. 751.

15) 태극출판사편, 前掲書, p. 336.

### Ⅲ. 聖書의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을 말할 때에는 히브어로는  $\Gamma\gamma\Gamma\gamma$ (차—라아트)라 하며 희랍어로는  $\lambda\epsilon\pi\rho\alpha$ 라고 한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매맞는 자”, 즉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매를 맞는다는 것을 의미했다.<sup>16)</sup> 따라서 문둥병이라는 말의 의미로는 災難, 혹은 天罰이다.<sup>17)</sup> 신약에서  $\lambda\epsilon\pi\rho\alpha$ 와  $\lambda\epsilon\pi\rho\acute{o}s$ 는 그 말이 구약이나 70인역에서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不快한 慢性疾病을 가리킨다. 이것은 누가복음 4:27절에서 구약을 언급하는 사실과, 또 마가복음 1:44절에서 구약의 潔禮儀式을 언급하는 사실로 보아 입증된다.<sup>18)</sup>

성경, 특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둥병이 지금의 문둥병과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시되어 왔다. Gramberg에 의하면, 레위기 13—14장에 기록된 “문둥병”은 그 증상들로 보아서 현재의 문둥병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sup>19)</sup> 리스트론, 벤넬경이나 그 밖의 학자들은 성경의 문둥병이란 말은 여러가지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sup>20)</sup> 그러나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문둥병이 단순한 피부병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둥병과 피부병은 제사장이 엄밀히 區別되어 있기 때문이다. 「七日만에 제사장이 또 診察할지니 그 患處가 엷어졌고 病色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할 것이요」(레 13:6)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不淨하다 診斷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레 13:8). 이 두 귀절에서 단순한 피부병과 문둥병과를 구별하고 있다. 레위기에 기록된 문둥병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피부병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sup>21)</sup>

하여간 성경에는 문둥병에 관한 記事가 많이 있다. 문둥병에 관한 언급만도 무려 60여회가 된다.<sup>22)</sup> 문둥병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敎訓을 남기는

16) 김상배, 성경대사전, (서울:종로서관, 1959), p. 187.

17) 박안련, 前揭書, p. 229.

18)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 T. Vol. N*, (Grand Rapids, Michigan: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 233.

19) 박윤선, 성경주석 레위기, (서울:영음사, 1971), p. 98.

20) 김춘배, 기독교대사전(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1), p. 326.

21) 찰스 어드먼저, 박봉량역, 레위기강해,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9), p. 70.

22) Zondevan Publishing House, ed., *The Zondervan Expanded Concordance*

례도 허다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처벌받은 자로 看做되어 犯罪者와 不淨한 자로서 숙영지나 거주처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sup>23)</sup>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에게서 이 병을 깨끗케 하는 길을 배웠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욕심때문에 오히려 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sup>24)</sup> 또 교만때문에 「웃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sup>25)</sup>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미리암」이 모세를 誹謗하자 그녀는 즉각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기도 했다<sup>26)</sup>. 문둥병자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병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병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고함을 쳐야하는 법이 따랐다.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레 13: 45—46).

「이 병은 卒地에 發生하나니, 그러므로 지상 여러 나라에서 생각하는 대로 의심할 것 없이 이는 그들의 신의 직접 보내는 患難이라 하며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신의 憎惡를 當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유대인 중이라도 문둥병자 된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하였다.」<sup>27)</sup> 위에서 성경의 실례를 든 것을 보아도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은 특별한 理由 때문에 하나님이 關係하신 特種의 病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道德的 犯罪의 結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8)</sup>

하나님이 내리신 직접적인 벌은 아니지만 교훈적인 의미로 문둥병을 發生케한 特別한 例가 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만일 애굽인이 모세의 간청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떤 措處를 내려야 하는가 문의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출 4: 6). 이 사실은

ce, (Grand Rapids, Michigan: 1971), p. 778.

23) 민수기 5: 1—4; 12: 10—15.

24) 열왕기하 5: 11—14, 27.

25) 역대하 26: 20—23.

26) 민수기 12: 1—16.

27) 콕안런, 前揭書, p. 239.

28) 찰스 어드먼저, 박봉량역, 前揭書, p. 70.

애굽에는 문둥병이 많이 있었으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애굽인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음을 前提로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異蹟을 행하고 있음을 저들에게 誇示하여 所期의 目的을 達成코자 한데 있었던 것 같다. 「고대인은 애굽을 문둥병의 發源地로 알았다. Lucretius의 말에 의하면 이 병은 나일 江邊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古代로 부터 依하는 傳說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왕이 애굽인 나병자들을 축출하여 이스라엘인과 同行하라고 命하였다는 것이다」.<sup>29)</sup> 이로 보건대 애굽인의 社會的인 문제였던 이 무서운 疾病의 발생 및 치료의 能이 하나님께 있음을 誇示하여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웨의 능력을 是認토록 하자는 데에 문둥병이 사용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 IV. 문둥병 診斷과 罪觀

레위기 全體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分解된다. 「첫째로 본서가 淸급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分離시키는 惡條件인 不潔을 除去하는 것과, 둘째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喪失된 交際를 回復시키는 일이다」.<sup>30)</sup> 이와 같은 레위기 전체의 내용분해는 문둥병을 다루고 있는 13장과 14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메이스(J. L. Mays)도 레위기 13장과 14장을 細分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둥병에 관한 主題에 이토록 紙面을 많이 割愛한 것은 주로 두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찰하기 위해 注視해야만 하는 징후(symptoms)이며 (13: 1—44), 다른 하나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規例이다(14: 1—32). 이 두장 속에는 옷에 관한 문둥병과(13: 47—59), 집에 대한 문둥병(14: 33—53)에 관한 언급도 포함된다」.<sup>31)</sup> 레위기 13장은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함에 필요한 注意와 方法이 詳述되고 있다.

문둥병을 診察하는 자는 醫師가 아니라 祭司長이다. 이것은 문둥병을 宗教的 觀點에서 다른 구약의 특징을 말해 준다. 「그러나 문둥병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책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命命한 것을 考察해 보

29) 淸安禎, 前揭書, p. 239.

30) 에드워드 영저, 홍반식, 오병세역, 구약총론, (서울: 성광문화사, 1976), p. 79.

31) J. L. Mays, *Leviticus, Numbers*, (London: SCM press LTD, 1963), p. 50.



면 但只 간략한 규칙에 의하여 환자를 打診하고 그 병이 참으로 어떤 病인지를 判別한 외에는 환자의 행할 일에 대하여서만 지시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祭司長의 責務는 禮式에 關한 것 뿐이요, 의학적이나 衛生的인 것은 아니었다.<sup>32)</sup>

제사장은 사람에게 생긴 문둥병에 관해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 그 眞否를 판가름해야만 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전혀 치료불가하기 때문에 이 병이 人間本性 속에 있는 罪, 인간의 주위환경 속에 있는 죄, 會衆 가운데 있는 죄등 하여간 죄에 대한 몸서리치는 象徴이 되었다」.<sup>33)</sup> 「人生에게 있어 나병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질병중의 하나이니, 生體를 死體와 近似한 腐敗慘狀에 投入하는 점에서 이것은 인류타락의 惡結果를 代表的으로 示顯하는 一種의 慘狀이라는 印象을 뜻있는 觀者에게 주는 것이다」.<sup>34)</sup> 「이 무서운 병이 어떠한 종류였든지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죄의 凶惡性, 隔離性, 破壞性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sup>35)</sup> 「우리는 여기서 그 질병이 不潔(죄악)을 비유한 점에 유의해 본다. 그 병을 제사장이 검사한 사실과 또한 그 병자가 치료된 때에 贖愆祭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은 그것이 罪惡이 象徴으로 취급된 證票이다. 문둥병은 죄악의 상징으로 생각된다」.<sup>36)</sup> 「문둥병에 대한 레위기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참된 성질을 啓示해 준다. 그것은 죄의 무서운 성격과 추함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죄에 대한 수치와 증오와 嫌惡感을 가득차게 해 준다」.<sup>37)</sup> 「문둥병은 다른 어떤 불결하고 추잡한 것 이상으로 특수하게 죄의 상징으로 看做되고 있다」.<sup>38)</sup> 問題의 提起項目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주석과 강해는 한결같이 죄의 상징이라고 논술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서 매킨토쉬 레위기 강해 13장에서 문둥병 진단과 관련된 罪觀을 상술하고자 한다. 13장에는 人體의 문둥병(13:1-46)과 의복의 문둥병(13:47-59)을 發見하고 응급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2) 광안련, 前掲書, p. 232.

33) 매킨토쉬, 前掲書, p. 283.

34) 광안련, 前掲書, p. 229.

35) 찰스 어드먼, 前掲書 p. 70.

36) 박윤선, 前掲書, p. 98.

37) Spence, Exell, *The Pulpit Commentary N. Leviticus*, (London and New York: Funk and Wagnalls Company), 1961.

38) 同上.

## 1. 人體의 문둥병

제사장은 문둥병을 診斷함에 있어서 조금도 放心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注意를 集中해야 할 두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회중의 淨潔과, 아주 明白하게 設定해 놓은 根據에 입각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會員도 逐出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은혜이다. 거룩은, 반드시 밖에 나가 있어야 할 사람을 그대로 안에 머물러 있도록 許容할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은혜는 반드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사람을 밖에 나가도록 許容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심각한 것인데도 결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으며, 또 전연 문둥병이 아니건만 문둥병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최대의 조심과 냉정이 필요하다.<sup>39)</sup>

사람에게 생긴 문둥병(죄)을 진단할 때에는 「七日동안」이란 시간의 경과를 必히 요구하고 있다.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祭司長은 그 환자를 七日동안 禁錮할 것이며 七日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患處가 변하지 아니하고 病色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七日동안을 금할 것이며 七日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레 13 : 5, 6). 그런즉 제사장은 단순히 소문만 듣고 문둥병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회중은 純潔해야만 한다. 그것은 회중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을 받을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없다」고 매킨토쉬는 말한다.<sup>40)</sup> 그런즉 하나님의 회중의 정결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은 회중 가운데 문둥병 환자로 疑問視되면 敏捷하고 細心하게 진단에 임해야 한다. 그것은 現今의 敎役者의 罪意識 및 處理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직도 죄처리를 매듭짓지 못한 교인을 그대로 교회 구성원으로 둘 때에 교회엔 문제가 따른다. 교회의 축출 문제와 제사장의 문둥병 진단 및 처리는 相通한다. 제사장은 사람에게 생기는 문둥병을 다음과 같이 四種으로 區分해야 한다.

(1) 스스로 피부에 생기는 문둥병 (13 : 1—17; 38—39).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色點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아론이나 그 자손중 한 제사장에

39) 매킨토쉬, 前掲書, p. 284.

40) 上同

게로 데려가야 함을 당한다. 제사장 앞에 와 있는 患者를 제사장이 診察한다. 진찰 결과 患處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것은 문둥병의 환처인즉 제사장은 그를 不淨하다고 말해야 한다(레 13 : 1-3).

그러나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문둥병의 如否를 確認할 수 없기에 그 환자를 七日 동안 禁錮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환처가 變하지 아니하고 病色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사장은 그 환자를 또 七日 동안 금고한다. 七日만에 제사장이 같은 환자를 이끌어 내어 진찰한다. 이번에는 그 환처가 癒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다. 이 때에는 제사장이 그 환자를 淨하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엄밀히 조사해본즉 단순한 피부병이었기 때문이다.

매킨토쉬는 문둥병과 피부병을 구별하는 작업이 제사장의 중요한 關心事로 講解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조심과 경계와 온전한 忍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그것은 문둥병이 아닌 것을 문둥병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진실로 문둥병인데도 굳이 문둥병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일등이 없도록 하려 함이다. 피부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문둥병 같이 피부에 많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제사장이 진찰해 보면 피부에 생긴 많은 것들은 단지 表面的인 것에 不遇한 것으로 나타난다」.<sup>41)</sup>

제사장이 문둥병의 여부를 確認코자 그토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인 것은 罪를 象徵하는 문둥병이 회중들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使命感 때문이다. 제사장이 해야 할 急先務는 문둥병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작업이 成功되자 다음 작업이 따른다. 新約에 있어서도 牧會者는 福音을 傳함에 있어서 먼저 福音招待의 對象者에게 罪意識을 깨우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죄 및 그것의 결과로 부터의 구원이 복음초대의 과제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服從하도록 초대와 命命을 받고 있다…… 사람 가운데서의 복음 메시지의 接觸點은 罪意識이다」.<sup>42)</sup> 구약에서의 문둥병 意識과 신약의 罪意識은 淨潔한 會衆構成에 있어서 必須의 이며 一次的인 要素다.

41) 同上

42) E. Y. Mullins, 前揭書, pp. 50-51.

이제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을 경우 제사장의 진찰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단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인도한다. 제사장은 진찰한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爛肉이 생겼을 경우 그것은 그 환자의 오래된 피부의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만 한다. 난육은 언제나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13: 14, 15). 따라서 禁錮할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문둥병 發見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하지만 이미 발견된 문둥병을 또 확인하려는 작업은 시간낭비다. 고로 환자의 금고가 이번에는 금지되어 있다. 13: 38—39절에는 제사장이 진찰한 結果 문둥병이 아니라 어루러기임이 판명되어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發하였으되 그 환자는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全身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자인즉 정하거니와」(13: 12 13). 이것은 部分的인 문둥병은 문둥병이나, 全體的인 문둥병은 문둥병이 아니라는 解釋이다. 물론 13절의 문둥병 해석에 대해서는 註釋家들 사이에 紛紛한 해석이 따르지만,<sup>43)</sup> 매킨토쉬는 그것을 문둥병 자체로 보고 靈的 敎訓을 提示하는 데에 많은 紙面을 割愛하고 있다.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라」(13: 13). 이것은 극히 高貴하고 흥미진진한 진리다. 아무리 작은 斑點이라도 그것이 문둥병의 반점일 경우 하나님은 관용하지시지 않으셨지만, 차라리 이제 와서 그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까지 아예 그 사람의 全身을 덮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정하다는 선언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그것은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贖罪의 피를 享有하기에 適切

43) 아마도 작은 문둥병 斑點에도 철저히 淨潔을 要求하시던 하나님이 全身에 퍼진 문둥병을 오히려 淨하다고 하는데서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 광안현은 그의 표준성경 주석 레위기에서 似而非 문둥병인 일종의 피부병이라 했고, 매튜헨리는 성경주석 시리즈레위기에서 부스럼이 머리부터 발병하거나 전신에 퍼졌으면 그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하면서 그것은 혹 아마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으며, Pulpit주석 레위기에서도 진짜 문둥병과 유사한 질병이라고 했다. T. P. Lange의 주석에서는 Patrick이 이 문둥병을 홍역의 發疹으로 보고 이것이 完全히 몸 밖으로 나왔으면 안전하다는 식의 해석을 취한다. 그러나 박윤선 성경주석 레위기에서 이것은 갑자기 전신에 흰빛을 드러낸 문둥병이라 했으며, 인간이 죄악을 內部에 간직해 두지 않고 外部로 만하고 있는 것을 비유한다고 했다. 매킨토쉬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 主人公이 되었다는 말이다.<sup>44)</sup> 매킨토쉬는 전신에 퍼진 문둥병은 사실 상의 자기, 本來的 自己를 하나님 앞에 赤裸裸하게 提示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나는 “사실상의 나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문둥환자가 진정한 근거 위에 서게 되는 것은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까지 完全히 덮어 씌워졌을 때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진리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롬 5:20). 무서운 질병으로 덮여있는 점이라고는 내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나는 내 자신을 끝장내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up>45)</sup>

(2) 腫氣 속에 생기는 문둥병(13:18-23)

여기서는 문둥병 斑點과 목은 종기의 痕跡과를 區別한다. 사람의 문둥병 중에는 종기를 起點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여기 종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38:12절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身病에 대해서도 사용했다. 또 욥기 2:7,8절에 욥이 신음한 종기도 본문의 종기와 同一語이며, 출애굽기 9:9절의 애굽인들의 질병도 지금 종기와 같은 名稱의 병이다. 신명기 28:27-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기도 역시 原語上으로는 지금의 종기와 同意語다. 그런데 신명기 28:35절에 “여호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深한 종기로 發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을 보아서 이 종기는 結節癩를 말한듯 하다.<sup>46)</sup>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患處에 흰 점이 돌거나 희고 불그스레한 色點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진찰한다. 진찰한 결과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不淨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이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문둥병의 환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좀 수상적은 만큼 七日 동안 환자를 禁錮해야 한다. 그 結果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할 경우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정하다 진단해야 한다. 「오래된 患部가 치료된 것 같았는데 다시 발생했다면 거기에 문둥병이 있지 않나 진찰해 봐야 한다. 세상의 더러움을 일단 피한 사람들이라

44) 매킨토쉬, 前掲書, p. 290

45) 上掲書, p. 295.

46) 淸安顯, 前掲書, p. 235.

도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베후 2:20).<sup>47)</sup>

(3) 火傷에서 생기는 문둥병(13:24-28).

여기서는 문둥병 色點과 火傷으로 因해 부은 것을 구별한다.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은 화상의 結果지, 문둥병균의 결과는 아닌 만큼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 「피부를 불에 데여」라는 말의 해석은 구구하다. 불에 덴것 같이 아픈 증기로 해석하는 수도 있으며,<sup>48)</sup> A.V 저자들은 여드름의 일종으로 생각하기도 했다.<sup>49)</sup> 그러나 카일(Keil)과 델리취(Delitzsch)는 韓譯과 一致하며,<sup>50)</sup> The Pulpit Commentary에서도 文字的으로 해석하고있다.<sup>51)</sup>

제사장은 피부를 불에 덴 환자가 그 상처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를 진찰해야 한다. 진찰 결과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것은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色點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알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七日 동안 금고할 것이다. 七日만에 다시 그를 診察한다. 그 結果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이것은 문둥병의 患處인들 不淨하다고 해야 한다. 反面에 色點이 如前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단순히 부은 것이니 淨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화상의 痕迹이기 때문이다.

(4) 머리나 수염에서 생기는 문둥병(13:29-37; 40-44).

이것은 머리나 수염에 있는 문둥병 색점과 이것과 같은 장소에 생긴 딱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男子와 女子의 머리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祭司長은 診察해야 한다. 患處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한다. 이것은 음인테 머리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이 환자를 七日間 금고한다. 七日만에 다시 진찰했는데도 수상하면 또 七日 동안 환자를 금고한다. 그 환자의 毛髮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고서 七日 만에 제사장은 또 진찰한다. 음이 피부에

47) 매튜헨리저, 홍정수역, 성경주석시리즈 레위기, (서울: 교문사, 1975), p. 159.

48) 박안련, 前揭書, p. 236.

49) Spence, Exell, 前揭書, p. 197.

50) 박안련, 前揭書 p. 236.

51) Spence, Exell, 前揭書, p. 197.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고 선언한다. 계속해서 조사해 본 결과 검은 털이 나면 정하다고 영구히 선언한다.

또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는 정하지만, 거기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문둥병이 발한 것이니 이는 확실히 부정하다고 진찰할 수 있다.

## 2. 문둥병자 處身

前述한 바와 같이, 祭司長은 사람에게 생긴 문둥병을 철저히 糾明해 내고 있다. 문둥병으로 확인이 될 때에 어떤 措處를 取해야 하는가를 성경본문이 말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문둥병과 類似的한 피부의 色點이나 딱지나 腫氣의 흔적이나 火傷의 부은 것이나 머리나 수염의 딱지 정도에는 관대하신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診察할 필요도 없었으며 별스러운 措處도 필요치 않았다. 卽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虛弱, 缺點, 그리고 失敗 따위엔 참으실 수 있으나, 그것이 더러움의 경우일 때에는 거룩한 회중 가운데서 결코 관용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법이 없었다. 매킨토쉬는 회중 가운데의 악이 결코 존속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죄가 역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는 그의 백성들과의 교제는 있을 수 없다. “혼자 살되 陣밖에 살지니라.” 얼마 동안? “병있는 날 동안”이다. 이것은 굉장한 실제적인 진리다. 악의 세력이야 말로 친교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외부적인 虛勢, 單純한 形式, 卽 空虛한 告白이 있을지는 모르나 악의 세력이 거기 있는 한, 결코 친교는 있을 수 없다. ……악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한, 그것은 친교에 방해를 논다. 그것은 친교를 중지시키고야 만다」.<sup>52)</sup>

매킨토쉬는 그의 민수기 강해에서도 문둥병자, 流出病 있는 자, 주검으로 不淨케된 자들이 광야의 진박으로 반드시 分離當해야 할 대상자들을 強調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對型이 지금 教會가운데서도 반드시 분리당해야 함을 역시 강조했다. 그는 또 회중 가운데 죄악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회중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심판받은 악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 허용하고 認定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을 教會에게 適用시키고 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터의 어떤 사람을 분리케 하는 것은 악의 양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한 회중이 교리 및 도덕 양자에 있어서 엄연히 나타난 악을 심판해야 하는 회중 자체의

52) 매킨토쉬, 前揭書, pp. 287—288.

엄숙한 책임을 부인하고 나서면, 그런 회중은 전연 하나님의 교회의 기  
초 위에 더 이상 서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당신이 그런 회중에게서부  
터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책임있는 의무가 된다.<sup>53)</sup>

문둥병자는 자기의 不淨함을 反復해서 宣稱하되, 자기가 정결하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他人으로 하여금 接近하지 못하도록  
注意시키는 責任까지 지닌다. 그리고는 진박에 살피 혼자 살아야 한다.  
[웃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에 그도 궁전에서 물러나 “별궁에 홀  
로” 거하였다(대하 26 : 21; 왕하 7 : 3). 이것은 회개를 싫어하는 수치스  
러운 죄인들을 聖徒의 交際에서 엄숙하게 출교시킴으로써 교회의 福音은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象徵해 준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서 내어 쫓으라”(고전 5 : 13)].<sup>54)</sup> 이 사실은 兄弟가 犯罪할 경우 처음엔  
일대일로 歡告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證參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教會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異邦人과 稅吏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相通한다.<sup>55)</sup>

### 3. 衣服의 문둥병(13 : 47—59)

의복에 發生하는 문둥병에 對해서는 本文이 明白히 밝히지 않는다. 본  
문은 단순히 의복에도 문둥병이 생긴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惡性문둥병  
이라 했다. 밋첼(Mitchell)박사는 사람에게 발생한 문둥병과 의복에 생  
기는 문둥병의 원인은 同一하다고 했으며, 케일(Keil)은 곰팡이균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sup>56)</sup> 혹은 문둥병 환자가 입었던 옷이 患部에 닿았기 때문  
에 發生하는듯 하기도 하다.<sup>57)</sup> 문둥병이 생기는 의복은 毛製, 棉製, 麻  
製, 皮製 등이다.

의복의 문둥병 진찰은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는 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그 色點이 퍼졌으면 문둥병임이 확실하다. 그것이 퍼지지 않았  
할지라도 그것을 세탁하여 七일을 기다린 후에 그 색점이 변치 않는 경  
우에는 역시 문둥병으로 판정된다. 옷의 문둥병 진찰에도 二週의 時間을

53) 매킨토쉬. 前掲書. , 민수기강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6), p. 114.

54) 매튜 헨리, 前掲書 p. 163.

55) 마태복음 18 : 15—17.

56) Spence, Exell, 前掲書, p. 210.

57) 짝안런, 前掲書, p. 238.



要하는 注意와 忍耐가 필요하다. 매킨토쉬는 옷은 인간의 環境 내지는 習慣에 對한 思想을 마음에 暗示해 준다고 보고, 우리가 행하는 길에 나타나는 惡의 活動들을 銳意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sup>58)</sup> 「하나님을 섬기는 聖潔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람의 使用하는 道具나 環境에 대하여서까지 조심하여 그것들을 깨끗이 하도록 힘쓸 것을 가르친다. 유다서 23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증홀히 여기라” 하였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5:22절에서는 말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다.<sup>59)</sup>

문둥병이 발견된 옷에 대한 處理는 불사르는 일(13:52,57)과, 빠는 일이다(13:54,55,58). 이것은 나쁜 습관은 發見되는 即時 拋棄해야 함을 意味한다. 철저히 잘못된 環境이나 位置에 들어갔을 경우 假借없이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옷을 태운다는 것은 악한 인간의 습관이나 環境을 審判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경우에는 빨게하기도 하는 바, 이것은 人間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매킨토쉬는 이에 關連된 教훈을 다음과 같이 表現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실제적인 教훈에 대한 豊富한 資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位置, 우리가 서 있는 環境, 우리가 행하고 있는 습관, 우리가 지닌 특성을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 이런 것에 특별히 注意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기타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 ‘악성’ 또는 ‘復發한 문둥병’이 될까봐 염려해서 모든 의심스러운 徵候와 特色은 부지런히 주의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는 그 위치 전체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도 그 속에 들어 있는 어떤 나쁜 요소를 능히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나, 한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란 전연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 속이나 습관 속이나 또는 친교관계 속에 등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형태의 더러움을 특별히 조심해서 경계하기를 빈다」.<sup>60)</sup>

58) 매킨토쉬, 前揭書, pp. 295~296.

59) 박윤선, 前揭書, p. 102.

60) 매킨토쉬, 前揭書, pp. 297-298.

## V. 문둥병의 潔禮儀式과 贖罪觀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을 淨潔케 하는 潔禮儀式을 言及하고 있다. 13장의 문둥병 진단의 지시는 모세와 아론 양인에게 내려졌으나 14장의 문둥병 정결의식의 지시는 모세 개인에게만 내려졌다. 潔禮儀式은 대개 陣外儀式과 陣內儀式으로 兩分된다.<sup>61)</sup>

### 1. 陣外潔禮儀式(14:1-9)

陣外潔禮儀式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산새 두마리와 白香木과 紅色노끈과 우슬초와 맑은 물을 담을 질그릇 한개를 예비한다.

(2) 산새 한 마리는 질그릇에 있는 맑은 물에서 잡는다.

(3) 산새 한 마리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노끈으로 빗자루와 같이 맨다.

(4) 그 빗자루를 질그릇에서 잡은 새의 피와 물을 적시어 문둥병자의 몸에 일곱번 뿌릴 것이다.

(5) 그 후에 새는 들에 놓아 보낸다.

(6) 그 후에 문둥병자는 자기 온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 의복을 세탁하고 목욕한 후에 비로소 營內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전에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聖所와 會衆과 동떨어진 陣營 밖에 있었다. 그곳은 荒涼하고 외로우며 깨끗치 못한 곳이다. 문둥병자는 인간의 도움이 미치지 못할 곳에 살았다. 自身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接하는 他人을 汚染케 만들기 때문에 진영 밖에 놓인 신세가 되었다. 문둥병자는 完全히 無力感 狀態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를 處理하는 문제는 本人의 所管이다. “제사장은 陣에서 나가서”라는 말은 있어도, “문둥병자가 나가서”라는 말은 없다. 문둥병자는 全的으로 自力에 依하지 않고 他力에 依해 解決을 본다.<sup>62)</sup> 제사장이 陣에

61) 매튜헨리, 풀깃주석, 광안련, 박윤선 주석이 모두 이렇게 大別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본문이 明白하게 陣外潔禮儀式과 陣內潔禮儀式을 언급한데 기인한다.

62) 매킨토쉬, 前揭書, p. 299.

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居所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신 아드님이 영원한 거소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려오사 문둥병 같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뜻한다. 그리스도는 가야할 路程을 다 가셨다. 그리스도의 강림만이 罪問題를 해결한다. 世上의 事物들이 形成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이나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의 아들을 주셔야만 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sup>63)</sup>

치료된 문둥병자의 깨끗함을 宣言하는 의식에 사용된 材料에는 神靈한 뜻이 있다. 「白香木」은 腐敗와 反對되는 永生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고(수 2:18), ‘우슬초’는 향기 있는 植物인데, 역시 부패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죄를 정결케 함을 비유한다(시 51:7). 문둥병은 죄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그것의 정결을 선언하는 의식에 있어서 이런 재료들이 사용된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죽임을 당한 새의 ‘피’는 속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질그릇’은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고후 4:7). 물과 피를 합하여 뿌리도록 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상징한다(요 19:34). 그리고 들에 놓아주는 ‘산 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한다.<sup>64)</sup>

문둥병이 除去되기 以前에 피흘림의 일이 基本的으로 必要했던 것이다. 欠없는 祭物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피흘림이 없으즉 사함이 없으니라”(히 9:22). 여기서 제사장이 산 새 두마리를 取하여 그 중 한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안에서 잡게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模型이다. 나머지 하나의 산새는 들에 놓게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다. 「이 산새는 그것의 다른 한 짝이 죽은 후가 아니고서는 나아가도록 허용되지를 았았다. 왜냐하면 산새와 죽은 새 등 두마리의 새는 그리스도의 부스러운 사역, 곧 죽음과 부활의 두 단계에 處한 한분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수천마리의 새가 들에 놓인 다 할지라도 문둥 환자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을 것이다. 문둥병자에게

63) 前掲書, pp. 300—301.

64) 박윤선, 前掲書, pp. 104—105.

효과가 있는 새는 동료새가 죽은 후에 열린 창공을 향해 날아가면서 그의 날개에는 이미 完成된 救贖의 의미있는 徵表를 지닌 산 새이다. 그것은 事役은 完了되었고 基盤은 정결케되고 기초가 단단히 놓였다는 위대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福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의 영화로운 승리를 선언한다.<sup>65)</sup> 또한 우리는 산 새가 놓이는 사실에서 우리가 罪責 및 定罪에서 온전히 解放되는 것과 세상의 모든 誘惑과 肉의 모든 영향력에서 부터 전적으로 구출을 받는 것도 본다. 홍색실은 前者를, 백향목과 우슬초를 後者를 提示한다. 信者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罪責의 終結과 땅의 모든 영광의 종결과 육의 모든 組織의 종결을 보게 된다. 換言하면, 신자는 옛 創造에 屬한 모든 것을 종결하고 그리스도로 轉단을 받는 것이다.<sup>66)</sup>

14: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문둥병이 完治되는 일의 考案과 成就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문둥병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제사장은 뿌릴지니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뿌리며 자기 자신을 정하다고 선언하거나 생각한다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신판자이셨다. 하나님은 治癒者이셨다. 하나님은 홀로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문둥병을 제거하시는가를 아시고, 언제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가를 다 아신다.<sup>67)</sup> 그러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자기가 행할 것, 말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문둥병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문둥병자가 완치된 것을 자신의 감정과 實感에 의해 확인하려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리스도의 贖罪와 救援의 事實을 구원받은 자 자신의 感情 및 實感에 의해 확인하려는 苦痛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매킨토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피를 뿌린 자는 제사장이며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한 자도 제사장이다.

65) 매킨토쉬, 前揭書, pp. 304—305.

66) 上揭書, pp. 306—307.

67) 上揭書, pp. 307—308.

……그러나 굳이 자기의 실감의 문제가 야기될 순간엔, 平安은 깨어지고 마음은 절망되고 정신은 흐려진다」. 68) 문둥병자가 자신을 바라 보아서는 정함을 얻는 선언의 근거를 찾지 못한다. 뿌려진 피가 거룩한 기록의 기초다. 문둥병자나 죄인이 不安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죄의 價値에 對한 主觀的 判斷에 依存한 때문이라고 Watchman Nee는 말하고 있다.

「Now the whole trouble with us is that we are trying to sense it; we are trying to feel its value and to estimate subjectively what the Blood is for us. We can not do it; it does not work that way. The Blood is first for God to see. We then have to accept good valuation of it.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전반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피의 가치를 느껴보며 또 그 피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피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보시라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피에 대한 선한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69)

8—9절은 치료된 문둥병자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社會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언급이다. 옷을 빨며 털을 밀며 몸을 씻는 것들을 七日 동안 행한다. 그것은 신자가 稱義를 받은 후에도 모든 罪惡의 찌꺼기를 버리며 聖化되는 기간을 비유한다. 70)

여기서 特記해야 할 사실은 陣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七日을 居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정결하다고 宣言을 받은 문둥병자는 以前에는 도저히 자기가 行하려고 試圖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清潔케 하며 습관(옷)을 정하게 하며 모든 털을 미는 작업이다. 그러나 아직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피는 赦罪의 唯一한 基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의 습관, 행하는 길, 모든 관계를 정결케 하고 지시해 주는 것으로 알아 所有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聖靈의 能力 안에서 自己의 私의이고

68) 前揭書, p. 311.

69) Watchman Nee, *The Normal Christian Life*, (London and Eastbourne: Victory press, 1971), p. 15. 한국어판으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와 있다.

70) 박윤선, 前揭書, p. 105.

도 個人的인 特權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매킨토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둥병자는 자기 위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에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전자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판단상 정결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지성과 그 자신의 표현된 특성 속에서 實踐的으로 정결함을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sup>71)</sup>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성화를 잘 말해주는 사상이다.

## 2. 陣內 潔禮儀式(14:10-32)

陣 안에서 행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 (1) 七日 동안을 기다리되 聖殿이나 혹은 聖物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
- (2) 제八일에 온 몸에 털을 다시 다 깎고 목욕하고 의복을 세탁할 것.
- (3) 贖愆祭物은 수양과 燔祭物로 암양과 素祭로 드릴 것을 같이 준비하여 성전으로 갈 것.
- (4) 제사장이 먼저 속건제물을 드릴 것.
- (5) 제사장이 소제의 기름을 여호와 앞에 드릴 것.
- (6) 제사장이 그 기름을 일곱번 여호와 앞에 뿌릴 것.
- (7) 제사장이 속건제물의 피를 병자의 右便 鬚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
- (8) 제사장이 남은 기름으로 병자의 머리에 뿌릴 것.
- (9) 제사장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릴 것.
- (10) 병자를 정하다고 광고할 것 등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수양, 암양, 고운 가루와 기름은 祭物의 全範圍를 다 紹介한 것이다.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은 속건제물이다. 이것은 문둥병자가 실제적인 하나의 犯法者로 보인 까닭이다. 속건제물의 피를 모두 우편에 있는 지체에게 뿌렸는데 이것은 죄된 肢體의 정결을 상징한다. 다음엔 성별을 의미하는 기름바름이 있었다. 「피는 赦罪를 爲한 것이고 기름은 聖別을 위한 것이다」.<sup>72)</sup> 피와 기름이 인간의 지체에 뿌려진 것은 지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行할 때에 否定的인 面과 肯定的인 面이 있음을 말해 준다. 예를들어 귀지체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을 듣는 수단이 아니라

71) 매킨토쉬, 前揭書, pp. 315-316.

72) 박윤선, 前揭書, p. 106.

牧者의 음성을 듣는 데에 敏捷해야 하는 것이다.<sup>73)</sup> 매킨토쉬는 “기름”이 속건제물의 피 위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活動의 거룩한 基礎다. 피와 기름은 함께 간다. 죄인된 우리는 피에 근거하지 않고는 기름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속건제희생의 피가 먼저 나타나서 活用되기까지는 기름이 문둥병자에게 부어질 수가 없었다」.<sup>74)</sup>

贖愆祭物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든 허물들을 除去하셨으며, 贖罪祭物로서의 그리스도는 그 허물들의 原因인 커다란 뿌리를 處理하셨으며 燔祭物로서의 그리스도는 無罪하신 그리스도의 自願的 獻身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셨으며, 素祭物로서의 그리스도는 完全한 人間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주는 것으로써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했다.

陣박에 있던 문둥병자가 陣안으로 들어오고, 陣안에 들어와서는 제사장인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제사장적 특권까지 누리게 하시는 일의 그림자다. 이런 地位回復과 영광은 문둥병자의 노력과 공로와 의로 된 것이 아니라 純全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다.<sup>75)</sup> 빈한한 자를 위한 제물의 量은 힘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정해졌는데 이것도 은혜에 속한 일이다(14: 21—32).

### 3. 家屋의 潔禮儀式

가옥에 문둥병이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意見의 差異가 있다. Pulpit Commentary에서는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건축재료에서 스며나온 硝石이거나 眞菌類의 發牙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문둥병의 외모와 너무나 類似해서 推論에 의거 문둥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sup>76)</sup> 이렇게 가옥의 문둥병과 인체의 문둥병을 구별하려는 암시를 하고 있으나 대개는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sup>77)</sup>

73) 매킨토쉬, 前揭書, p. 319.

74) 同上.

75) 上揭書, pp. 322—324.

76) Spence, Exell, 前揭書, p. 227.

77) 곽안련 표준성경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古代著述家中에 多數와 少數의 近代저술가들의 생각에는 의복이나 가옥내에 있는 문둥병은 인간육체의 질병과 무슨 연락이 있는 줄로 알았다. 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옥문둥병은 유대나라에만 유일한 관계가 있으며, 율법시대에 상관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이 병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惡舌罪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박윤선 주석에서도 문둥병을 文字的으로

하여간 집에 문둥병이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곧 제사장에게로 간다. 이 병의 진단은 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문제의 房을 비게 만든다. 診察方法은 사람의 경우와 同一하다. 돌을 뽑아내고 또 벽을 끊어내고 다시 발랐다. 그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균이 消滅되지 않으면 그 집은 헐어버린다. 집에 대한 潔禮儀式도 환자의 결례의식과 동일하였다. 그것은 사람과 만물이 다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정하게 됨을 상징해준다.<sup>78)</sup>

## Ⅵ. 結 語

序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組織神學에서 문둥병이 죄를 상징한다는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新約에 와서는 죄는 外部的인 性格보다 內部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新約의 表現의 罪觀을 보다 視覺的 外形的으로 說明提示하기에 문둥병을 實例로 드는 것은 매우 效果的이다. 「죄는 行爲나 氣質이나 狀態에 있어서 하나님의 道德的 法則과의 一致의 缺如이다」.<sup>79)</sup> 원래 죄는 행위에 대한 기질 및 상태에 적용된 것이다. 특히 신약의 죄설명은 영혼의 외적행위 보다는 상태와 기질에 의존한다. 도덕적 악은 사상과 욕정에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생겨나는 마음에 돌린다.<sup>80)</sup> 이와 같이 보다 內面的인 罪觀을 우리의 視覺에 分明히 提示해 주는 데에는 문둥병 이상의 더 좋은 예가 없다. 매킨토쉬는 레위기 13장 14장을 註釋的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靈的 象徴的으로 講解했다. 그는 始終一貫해서 문둥병은 죄며, 문둥병과 關連된 모든 것은 죄와 關連된 모든 것으로 해석했다. 매킨토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만 본향을 마치면서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문둥병에 관한 이 모든 주제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물론 오늘날의 신앙고백한 교회에게도 위대한 攝理的인 意味가 있음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up>81)</sup> 문둥병

보고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깨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으므로 땅의 것으로 지은 집에도 병균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사는 가옥을 지나치게 의지한다」.

78) 박안련, 레위기강의, p. 86.

79)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1976), p. 549.

80) 上揭書, pp. 552—553.

81) 매킨토쉬, 前揭書, p. 331.



자를 다루는 제사장은 죄문제를 철저히 다루며 인간의 심령을 진찰하는 牧會者와 같다. 매킨토쉬가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의 문둥병으로 상징해서 오늘의 時點에서 적용한 것은 과연 적절한 적용이라 하겠다. 여기서 牧會者의 任務, 黜敎를 內包한 敎會行政, 福音傳播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實踐해 내는 데에 基礎知識이 되는 罪觀과 救贖觀을 視覺的 및 象徴的으로 雄辯해 주는 바가 있다. 따라서 문둥병의 죄상징은 組織神學的 見地에서도 마땅히 言及하고 목회학적 입장에서 적용해야할 課題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매킨토쉬저, 권혁봉역, 레위기강해  
 김정준, 이스라엘 信仰과 神學  
 김익달, 가정의학 대사전  
 태극출판사, 현대가정의학백과  
 박안련, 표준성경주석, 레위기  
 김상배, 성경대사전  
 박윤선, 성경주석 레위기  
 김춘배, 기독교대사전  
 에드워드영저, 홍반식의역, 구약총론  
 버나드햄저, 권혁봉역, 성경해석학  
 매킨토쉬저, 권혁봉역, 민수기 강해  
 찰스어드먼저, 박봉량역, 레위기강해  
 매튜헨리저, 홍정수역, 성경주석 시리즈 레위기  
 E. Y. Mullins,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A. H. Strong, *Systimatic Theology*.  
 G. Kittel, *Theological Dicionary of the N. T. Vol. IV*.  
 Zondervan Publishing House, ed., *Concordance*.  
 J. L. Mays, *Leviticus*.  
 Spence. Exell, *Pulpit Commentary*.  
 Watchman Nee, *The normal Christian Life*.